

국제유가 급등과 사우디로의 전자수출(I)



윤 동 훈
본회 이사

1. 국제유가는 고공 행진

□ 국제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의 주종을 이루는 석유의 도입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외화의 지불 증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수출입국인 우리나라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보유하여야 하는데,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외화가 더 크게 유출되는 것이다.

이처럼 커다란 관심사인 국제유가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는 한 때 백불 운운하기도 하였다. 올해 초 다소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우리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유가하면 으레 20불 정도라는 이야기가 오갔었다. 그러던 유가가 이제는 50불 이상 100불을 넘보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는 2003년 이후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에는 사상최고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미국산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격이 2006년 7월 배럴당 78.4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가 많이 도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도 한때 70불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가격 추이를 보면, 2002년 배럴당 23.8불에서 2003년 26.8불로 상승하였다. 2004년에는 30불선을 넘어선 33.7불에 이르렀고, 2005년 49.3불이고, 2006년에는 60불 내외를 기록하였다.

□ OPEC 산유국이 주도하고 있다

전세계에 산유국이 분산되어 있으나, 세계석유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은 석유수출국기구(OPEC)라 할 수 있다. 산유국은 크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산유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OPEC회원국들이 세계 석유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OPEC 11개회원국은 세계 원유 매장량의 4분의 3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원유 생산량의 41%, 천연가스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회원국에서도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은 경제 규모나 석유소비에 비해 산유량이 절대적으로 큰 편이다.

걸프만 6개 산유국(GCC 걸프지역경제협력체, 1981년 5월 창설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UAE)의 원유 생산량은 2005년 기준, 세계 전체의 약 23%를 점하고 있다. 원유수출량은 GCC가 하루 1천264만배럴로 세계의 28.3%, 원유매장량은 4천844억배럴로 세계의 40.3%, 천연가스 생산은 1천9백억입방미터로 세계의 7.1%, 천연가스 매장량은 41조 3천8백억입방미터로 세계의 23%를 각각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고

사우디가 GCC 6개국 대비 원유 생산량에 있어 60%, 원유 수출의 57%, 원유 매장량의 22%를 점하고 있다. 사우디의 원유 수출은 하루 720만배럴이다. 천연가스는 카타르가 25조7천억입방미터로 가장 많고, 사우디가 6조9천억입방미터이다, 천연가스 생산은 사우디가 695억입방미터이고, 카타르가 435억입방미터이다.

선진권인 서방 세계의 산업에 대한 젖줄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화시대나 디지털시대에 들어선 지구촌이라 할지라도 석유가 없으면 산업이 마비될 위협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절대 의존도가 석유에 있는 것이다.

□ 오일머니가 다시 넘치고 있다.

국제석유시장은 지난 1970년대 초 제1차 석유파동과 1970년대 말 제2차 석유파동을 거쳤다. 1, 2차 석유파동시 각국에서는 석유 수입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이 유출되었고, 이 자금은 고스란히 산유국 수증으로 흘러들었다.

산유국들은 넘치는 오일머니(Oil Money)로 행복스러운 고민에 빠지기도 하였다. 산업개발계획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일머니는 소모성 지출에 태반이 동원되었다. 산유국들은 제대로 된 단기는 물론 중장기성 투자계획을 집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도 중동불 덕을 톡톡히 볼 수 있었다. 중동 석유붐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국제고유가에 의한 오일 머니는 산유국으로 집결되지만, 그 중에서도 걸프만 6개 산유국에서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걸프만 6개국의 원유 생산량은 세계의 4분의 1일에 불과하나, 원유 수출은 세계의 3분의 1, OPEC 수출의 3분의 2를 점할 정도로 세계 석유시장에서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OPEC의 석유수출액은 2005년 기준 4천7백억달러로 제2차 석유파동시인 1980년보다 1.7배로 증가한 것이다. 1980년에는 현재보다 세계 소비국들의 중동의존도가 훨씬 높았다. 그 이후 세계 각국이 석유 개발에 나서면서 성과를 얻은 부분도 있다. 또한 석유 이외에 연료 다변화 정책을 각국이 앞서서 추

진하면서 석유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는 연료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공급하는 석유물량이 워낙 큰 편이어서 중동으로 가는 석유대금의 수준이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GCC의 석유 수출액은 3천2백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OPEC 석유대금의 60% 이상인 것이다. 이 중 사우디가 1천5백억달러, 38%를 차지하면서 수위이고,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12%로 그 다음 순위이다.

□ 중동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GCC의 경제는 오일머니의 유입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GCC의 경제규모는 2005년 기준 5,928억달러로 세계 18위이며, 한국은 7,876억달러로 12위에 랭크되어 있다.

사우디가 GCC GDP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 생산량의 60%를 점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카타르가 3만6천달러로 가장 높으며, 쿠웨이트가 2만4천달러, UAE가 2만3천달러, 바레인이 1만4천달러, 사우디가 1만달러를 소폭 상회한 정도이고, 오만이 9천달러 수준이다.

원유 생산량은 사우디가 하루 1천1백만배럴로 압도적이며, UAE가 275만배럴, 쿠웨이트가 265만배럴, 카타르가 110만배럴, 오만이 78만배럴, 바레인이 37만배럴이다. GCC는 하루 1천8백만배럴을 생산하는 것이다. 인구는 GCC가 약 3천5백만명을 헤아린다.

GCC의 대외 무역은 2005년 기준 5천2백만달러로 세계 무역에서 비중이 2.6%이고, 수출이 3.3%, 수입이 1.8%를 각각 점하고 있다. 수출국으로서는 일본이 19.8%, EU가 13.1%, 한국이 11%이다. 수입국으로 EU가 30.6%, 미국이 11.1%, 중국이 7.6% 순이다.

국제적으로 고유가를 보였던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은 7% 내외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GCC의 국내총생산

은 평균적으로 2001년 3.3%, 2002년 3.8%에서 2003년 8%, 2004년 7.1%, 2005년 7.3%, 2006년 7.4%를 보인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석유대금의 급증과 대외 개방에 의해 3년 동안 연간 30%라는 높은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UAE와 사우디로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2001년 314억불, 2002년 340억불에서 2003년 411억불, 2004년 532억불, 2005년 733억불로 크게 늘어났다.

□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GCC는 EU처럼 역내 시장, 통화를 단일화하는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가고 있다. 경제통합은 1983년에 발효된 경제통합협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후 지지부진하였으나 2000년대 들면서 진전되었다. 2001년 관세동맹, 단일시장, 통화단일화 등을 포괄한 경제협약이 다시 체결되었다. 관세동맹은 2003년부터 3년간 이행기를 거쳐 시행하고, 단일시장은 2007년까지, 통화단일화는 2010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한 것이다.

1983년에 역내 자유무역지대에 합의함으로써 관세장벽 철폐, 여행 자유화 등을 이루었다. 2002부터 통일관세법에 의거, GCC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은 최초 도착국가에서 관세 징수하고, 관세대금은 국가간 분배를 하고 있다.

관세동맹은 2003년부터 시행되어, 대부분의 역외 상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5%로 단일화하는 역외 관세율 조정을 단행하였다. 사우디는 표준관세율을 5%로 인하 하였다.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2%를 적용하였다.

단일시장은 1983년 자유무역지대 조치에서 거주, 이전, 민간 근로, 자본이동, 고용 등 경제분야에서 내국민 대우라는 비차별적 대우 원칙에 합의 하면서 시장되었다.

단일시장은 2007년이 목표였으나, 관세동맹의 지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일통화는 2002년말 회원국 통화의 미국불화에 대한 환율을 고정하도록 하는 등 2010년 실시를 확정하고 있다.

□ FTA(자유무역협정)가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는 통상정책이 지역주의에서 다자주의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지금은 지역적인 경제통합의 하나인 자유무역협정(FTA)가 성행하고 있다.

2003년 제2차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국제고유가현상, 에너지자원 비상, 정치적 영향력 증대 차원에서 GCC와의 FTA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GCC 회원국은 FTA 체결을 통해 투자확대, 교역 증대라는 플러스효과에다 미성숙단계에 있는 국내 제조업의 피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체결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레바논은 2006년 7월부터 GCC와 FTA가 발효되었고, 시리아와 요르단은 협상중이다. 미국은 개별 회원국과 협상을 있으며, 바레인과 오만과는 협상을 완료하였고, UAE와 쿠웨이트와도 그러하다.

EU와는 타결단계에 있으며, 중국은 GCC와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도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터키,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도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 한국과의 FTA 가능성

우리나라와 GCC와의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GCC는 2005년 기준, 교역 규모는 4위인 479억불, 수출은 8위인 62억불, 수입은 2위인 417억불에 달하고 있다. 무역적자는 355억불이다.

UAE로 수출은 27억불, 수입은 100억불로 72억불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쿠웨이트로 4.5억불, 59.7억불, -55.1억불이다. 카타르로 5.2억불, 55.9억불, -50.7억불이다. 오만으로 3억불, 37억불, -34억불이다. 바레인으로 1.1억불, 3억불, -1.9억불이다. GCC회원국에 대해 전부 무역적자인 것이다.

수출품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기계가 16억6천만불, 산업용전자가 8억7천만불, 철강제품이 6억9천만불, 직물이 5억

기고

4천만불, 산업기계가 4억5천만불, 기초산업기계가 3억9천만불, 가전이 3억1천만불이다. 수입품으로 석유류가 405억불로 GCC로부터 전체 수입의 61%를 점하고 있다.

GCC는 교역규모가 4위이고, 원유의 60% 이상을 GCC로부터 수입할 정도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유 도입의 80%가 중동에서 온다. 경쟁국들이 FTA를 먼저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석유대금 급증, 경기활성화에 따른 플랜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와 GCC의 협력 강화가 시급한 것이다.

GCC 회원국의 수입시장에서 EU가 54.1%로 최대국이며, 미국이 16.8%, 중국이 12%, 일본이 11.5%를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한국은 5.5%를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칼라TV 및 평판디스플레이에서 수입시장점유율은 한국이 46.9%(4억2천만불)로 1위이고, 중국이 34.7%, 일본이 11.6%이다. 휴대폰은 EU가 93.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4.3%(4억불)로 2위이고, 중국이 1.5%로 3위이다. 에어컨은 중국이 34.6%로 1위이며, 한국이 26.5%(1억8천만불)로 2위이고, 미국이 22.6%로 3위이다.

냉장고는 EU가 42.9%로 1위이고, 미국이 23.6%로 2위이며, 한국이 18.4%(98백만불)로 3위이고, 중국이 13.6%로 4위이다. 컴퓨터는 EU가 62.5%로 1위이고, 중국이 23.3%로 2위, 미국이 9.6%로 3위, 한국이 3.2%(61백만불)로 4위이다. 가열조리기는 EU가 47.8%로 1위, 한국이 32.2%(2억4천만불)로 2위, 미국과 일본이 9.5%를 점하고 있다.

사우디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도 있다. 일부 에어컨에 12%, 냉장고에 12% 등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한국이 GCC와 FTA를 체결하는 경우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 오일머니가 중장기 경제성장에 투자

과거 중동 산유국들은 오일머니를 낭비성 소비에 치중한 바

있었으나, 이번에는 장기 성장을 위한 미래성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GCC는 WTO 가입 등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인프라 구축, 산업구조의 고도화, 인적자원 육성 등 경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기업들은 오일머니붐이라는 환상보다는 달라지고 있는 중동 각국의 경제 여건에 적합한 진출 방안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사우디는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커지만, 경제적 자유는 미흡한 편인 점을 감안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전이나 정보통신전자제품의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사우디 국가 개관

□ 인구는 우리나라의 반이나 면적은 10배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 면적이 2,150만 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의 10배에 달하는 대국이며, 인구는 2천5백만명임. 수도는 리야드로 3백만명이 운집하고 있다.

1인당 GDP는 2005년 기준 1만2천6백불이며, GDP는 3,076억불이다. 언어는 아랍어, 영어이며, 종교는 회교로서 수니파가 85%, 시아파가 15%를 점하고 있다. 정치에 있어, 정교 일치회 회교군주국이며, 국왕이 임명하는 120명의 국정자문위원회가 의회의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구조는 2004년 기준, 농림수산업이 4.0%, 석유가공업이 42.6%, 제조업이 8.8%, 서비스업이 38.3%를 차지. 주요 부존자원으로 석유, 천연가스를 들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으로 국제고유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며, 국제석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 석유 수출로 무역흑자 지속

사우디는 석유관련 상품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 수출품으로 석유, 석유화학제품이고, 주요 수입품으로 기계류, 운수장비, 섬유류, 식품 등이다.

수출을 살펴보면, 2001년에 680억불, 2002년 725억불, 2003년 932억불, 2004년 1260억불, 2005년 1746억불이고, 수입은 같은 기간 286억불, 296억불, 339억불, 411억불, 513억불이다.

따라서, 상품수지는 2001년 394억불, 2002년 428억불, 2003년 594억불, 2004년 849억불, 2005년 1233억불의 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불당 환율은 평균 3.7사우디리얌(SR)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3%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 석유대금의 급증을 통해 활발한 경제성장

사우디는 수출의 약 80% 이상을 점하는 오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은 국제고유가와 석유생산 증가에 힘입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금액의 증가는 국내경제에 플러스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공공지출과 자본지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공지출의 증대는 소비자신뢰를 높이면서 개인소비, 투자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 경제성장은 2001년과 2002년 0.5%, 0.1%에서 2003년 7.7%, 2004년 5.3%, 2005년 6.5%로 도약하였고, 2006년에는 5.4%로 추정되며 2007년에는 4.6%를 둔화될 것이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가격보조금의 지속으로 인해 0.5%라는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2000년 4월에 설립된 사우디투자청(SAGIA)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새로운 전략투자계획을 2004년 8월에 발표하였다. 우선순위로 석유와 가스 및 후방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가 선정되었고, 다른 메인 분야는 동서를 잇는 전략지리적 위치하면서 수송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분야는 경제성장엔진의 주요소의 하나인 정보통신 기술(ICT)로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의 잡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우디는 2005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의 149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사우디는 과도기 없이 모든 WTO 룰을 준수하고 있음. 사우디는 회원국으로서 제8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사우디는 2005년 11월 제8차 5개년 계획(2005-2010)을 승인하였으며, 천연가스, 관광, 정보기술산업 등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다양화할 것이다. 반면, 국내 및 국외 투자를 저해하는 장애를 제거하는 등 경제사회 개발에서 민간섹터의 참여를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한국과의 관계

□ 한국과의 수교는 1962년에 수립

한국과 사우디의 국교 수립은 1962년 10월 16일이다. 주요 협정으로는 문화협력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항공협정, 항공운수소득면제협정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과 사우디의 무역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수출이 14억9백만불, 2004년 17억8백만불, 2005년 20억93백만불이며, 수입은 2003년 92억68백만불, 2004년 118억불, 2005년 161억6백만불로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수출품으로는 자동차, 철강 등이고, 주요 수입품으로 석유, 가스, 화학제품등을 들 수 있다.

□ 한국의 사우디 석유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전형적인 에너지수입국이므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친서방 경향을 보이는 사우디로부터 석유류를 비교적 많이 도입하는 편이다.

최근 중동의 석유판매금액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전자메이커들의 중동 진출이 적극화되고 있다. 중동인들이 금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장 전자제품을 수출하여 성공한 사례도 있다. 사우디의 경제와 소득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이므로 국내 전자메이커들이 사우디의 진출을 강화할 수 있는 호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